



엔티씨 전자레인지용 압력솥 '엔티씨룩'

도자기로 만든 압력솥 ... 13분 돌리면 밥 '뚝딱'



박노택 엔티씨 사장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자레인지용 압력솥 '엔티씨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박노택 엔티씨 사장(71)은 압력솥 업체 PN폰전에서 22년간 압력솥을 만들었다. 1987년 퇴사해 금형 제조 업체인 '나라테크'를 운영하던 박 사장은 '압력솥을 가스레인지가 아닌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릴 수 있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큰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세상에 내놓기까지 10여년이 걸렸다.

박 사장의 부인은 2년간 집에서 이 제품으로 요리하면서 보완할 점 등을 남편에게 꼼꼼히 알려줬다. 지난해 부인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나서 엔티씨룩을 선보였다. 세계 최초로 내열 도자기를 쓴 '전자레인지용 압력솥'이다. 박 사장은 엔티씨룩 판매를 위해 지난해 1월 엔티씨를 설립했다.

◆내열 도자기로 만든 내솥 제품 원리는 간단하다.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와 미압(약한 압력)이 압력솥 내 내열 도자기에 있는 식재료를 조리한다.

압력 조절 방식은 일반 압력솥과 비슷하지만 겉면과 외솥, 내솥의 3중 구조여서 수분 증발을 막고 음식이 건조해지거나 딱딱해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음식을 담은 내솥은 내열 도자기로 제작해 열 효율을 높이고 재료의

가열시 영양과괴 최소화 : 수육·계란·스파게티 등 다양한 요리도 간편하게 1인 가구·노년층에 인기

식감을 유지했다. 가열시 파괴되는 영양소를 최소화한다는 게 엔티씨 측의 설명이다.

기존 전자레인지용 압력솥은 내솥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본 제품이 대다수였다. 박 사장은 "전자레인지의 미압과 마이크로파가 식재료 속까지 골고루 익혀 맛을 살린다"고 말했다.

◆전자레인지 13분 밥 완성 기존 압력솥보다 조리 시간도 줄었다. 700W로 쪄면 13분 돌리면 밥이 완성됐음을 알리는 '뚝딱' 소리가 난다. 남은 밥은 압력솥에 보관했다가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밥맛이 되살아난다. 돼지수육 닭볶음탕 같은 육류, 양배추찜과 나물, 계란찜,

돌솥밥, 스파게티 등 다양한 요리를 4분에서 30분 사이에 만들 수 있다.

채소 요리를 할 때는 가스레인지 고온에서 물로 데치는 일반 조리법보다 수용성 비타민 등의 영양소 파괴가 적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버지와 제품을 함께 개발한 큰아들 박정근 개발실장은 직접 만들어 본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회사 블로그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요리법을 '재보'한다.

◆싱글족 노년층에게 인기 제품 가격은 3인용이 9만8000원이다. G마켓 옥션 등 온라인쇼핑몰과 KTX 역사 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처 '명품마루' 등에서 판매 중이다. 사용법이 간단하고 요리가 빠리 되는 데다 세척도 쉬워 젊은 층과 노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박 사장은 "엔티씨룩을 쓰면 여름철 가스레인지 앞에서 땀을 흘리며 음식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안산=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NSV의 구조방진용 고감시 방진메트 (032)812-2015 △휠보레의 자동차 바퀴 보호장치 (02)2263-2239 △엔티씨의 전자레인지용 압력솥 070-4157-6716 △에어텍의 e-나노 필터 공기청정기 (031)798-5676

박성택 회장, 中소중양회 '혁신팀' 가동

본격 조직개편 나서

박성택 신인 회장(사진)이 이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직개편을 위해 '제도혁신추진단'을 설치했다. 박 회장은 지난 2일 중기중앙회장에 취임했다.

이달 말까지 운영할 추진단은 △시스템 중심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조직개편팀 △중기중앙회 내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제도혁신팀 △회장의 공

약 내용을 검증하고 추진하는 공약추진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송재희 상근부회장이 맡았다.

추진단은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중앙회 직원을 대상으로 비합리적인 관행과 개선해야 할 제도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혁신 추진단이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중기중앙회는 다음 달에 조직 개편을 한다.

추가기자 gychu@hankyung.com



복제약 '9개월 독점권' 갖는 첫 의약품은...

뉴스카페

오는 15일부터 의약품 우선품목 판매허가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품목판매허가 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성공한 제약사에 9개월간 독점판매권을 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리지널 의약품 보유 한 다국적 제약사와 제네릭 독점권에 눈독을 들이는 국내 제약사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현재 특허소송이 진행 중인 대형 품목도 우선품목판매허가 제도를 적용받는다.

업계에서는 연간 1600억원어치가 팔리는 BMS의 조대형 품목

'바라크루드'(B형 간염 치료제)와 연 6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한미약품의 계량신약 '아모잘탄'이 우선품목판매허가 제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라크루드는 국내 업체들이 조성물특허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한 상태다. 10월에 끝나는 물질특허 종료료 전제로 신규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독점판매권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고혈압 복합제인 아모잘탄에는 21개 제약사가 특허 도전에 나섰다. 현재 3개 특허 중 2개 사건에서 1심을 이겨 독점권 요건을 갖췄다. 아모잘탄은 30일 재심사가 예정돼 있다. 제네릭 허가를 신청한 제약

사 중 재심에서 승소한 업체에 독점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7월 옹도 특허가 끝나는 조루치제 '프릴리지'도 독점권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 현재 국내 7개 제약사가 소송에서 2심까지 이긴 상태다. 이 밖에 1심 특허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오리지널 의약품의 항배도 관심이다. 600억원대 소연진통제 '세레브렉스'를 비롯해 200억원 규모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업체가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독점권 부여 기준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chsan@hankyung.com

2015 국제 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비트컴퓨터 직원이 부스형 원격진료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비트컴퓨터 제공

의사 얼굴 화상으로 보며 혈압·체지방 등 원격진료

34개국 1145개사 참여

원격진료 시스템 개발업체인 비트컴퓨터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에서 원격진료 시스템 '헬스케어 스테이션'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4m² 크기 부스에 설치된 컴퓨터와 모니터, 카메라를 통해 의사 얼굴을 보면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부스 안에는 혈액검사기, 혈압계, 체지방계, 심리치료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가 설치돼 있다. 정부가 최근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군부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시회에서 주목받았다.

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는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사랑카드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고 진진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성분 분석기를 만드는 인바디는 시계 형태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 밴드'를 내놨다. 체성분 분석

과 함께 심박 수, 걸음 수, 수면 추적 등의 기능을 더했다. 밴드 위와 아래에 있는 전극에 손가락을 대면 체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 류경호 인바디 부사장은 "체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손목형 밴드는 인바디가 세계에서 처음 개발했다"며 "판매 가격이 18만원대로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셀텍은 세계 처음 개발한 3차원(3D) 비디오 수술현미경을 전시했다. 화면이 선명하고 이미지 왜곡이 없어 오랜 시간 수술해도 피로를 느끼지 않고 수술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설명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내시경을 탑재한 카테터(수술용 가는 관)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의료기

기산업협회·한국이엔에스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후원한 이 전시회에는 한국을 포함해 34개국 1145개 업체가 참가했다. 오는 8일까지 열린다. 조미현기자 mwise@hankyung.com

LG, 단열성 높은 유리

LG하우시스는 단열성을 높이고 독특한 색상을 더한 새로운 유리 제품을 내놓았다. 유리 표면에 은 코팅을 두 번 해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햇빛을 더 잘 차단할 수 있게 한 더블 로이 유리다. 회사 측은 "상업용 건물 유리 시장 공략을 위해 태양열 차단 성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르호봇 대표 목영두 씨

비즈니스센터 프랜차이즈 르호봇비즈니스인 큐베이터는 5일 목영두 부사장(52·사진)을 대표로 선임했다. 중앙대 대학원에서 첫 번째로 창업학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 창업컨설팅전문 전문가다.

눈밑지방·주름, 재수술 레이저 치료



장문진 원장 연세대 의과대학 졸업 눈밑지방·주름, 흉터 거의없이 30분정도 시술

최근 눈밑 지방과 눈밑 처진주름, 팔자주름, 목주름 치료에 레이저와 고주파를 이용한 써마지시술법이 시행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눈밑지방 눈밑이 볼룩한 눈밑지방의 경우는 우선 레이저로 지방을 제거한 후 써마지로 치료를 하면 한결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술은 눈꺼풀 안쪽 결막을 통하여 레이저로 볼룩하게 처진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외부 흉터없이 눈밑 예고살의 근육은 보존하면서 지방과 다크써클을 제거하기 때문에 시술 후 한층 젊어 보일 수 있다.

특히 지방제거 후 눈밑피부는 써마지를 이용한 시술로 강력한 고주파열이 노화된 콜라겐의 수축을 일으켜 탄력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 눈가의 처진 주름과 잔주름을 효과적으로

개선시켜 준다.

이 시술은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 일반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 중년층뿐 아니라 30대의 바쁜 직장인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시술시간은 30분정도고, 써마지 시술시 약간의 통증으로 인하여 마취연고를 이용한 피부마취가 필요하며, 간혹 시술 후 붉은증이 나타날 수 있다.

▶ 눈밑지방 재수술 눈밑지방 재수술은 일차적으로 눈밑지방을 외과적으로 수술한 후 지방재배치 후에 눈밑 피부의 늘어짐으로 인하여 지방이 다시 나온 경우, 피용상 재수술이 필요하다.

레이저를 이용한 눈밑지방 제거술은 눈 안쪽 결막을 통해서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다. 실제로 레이저를 이용한 재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대부분이 시술 후 외관



이 자연스럽고, 남아 있는 눈밑 예고살은 유지되며, 결막이 뒤집히는 현상이 안 생겨 시술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또한 이 방법

은 또다른 흉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도 시술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피부처짐이 심할 경우, 지방제거 시술 후에 다소 주름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고주파를 이용해 추가로 피부를 끌어 보 다 나은 미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제거 후 처진 피부부 써마지를 이용한 시술을 하면 상안검과 하안검 부위 모두 피부를 리프팅시켜 더욱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눈의 처짐을 줄이고 잔주름을 효과적으로 개선시켜준다. 그러나 써마지를 이용한 시술은 시술 후 얼굴 붉어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눈밑지방 제거술 후 멍과 부종이 동반될 수 있다.

연세SL의원 02-3443-4888 www.laserpia.co.kr